

뉴스홈 | 최신기사

<월드컵축구> 허정무 "UAE전은 투톱 공격수로 해결"

송고시간 | 2008-10-09 18:16











이영호 기자







(파주=연합뉴스) 이영호 기자 = "투톱으로 해결하겠다"

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아랍에미리트연합(UAE)과 2010 남아프리카공회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(15일 오후 8시.서울월드컵경기장) 필승 카드로 투톱 스트라이커를 내세우기로 했다.

허정무 감독은 9일 오후 파주 NFC(대표팀트레이닝센터)에서 대표팀 첫 소집훈련을 마친 뒤 "UAE전은 투톱 공격수를 내세우기로 했다. 상대팀 분석을 통해 투톱을 앞세운 4-4-2 전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"며 "전술이 제대 로 맞아들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래도 현재로선 가장 적합한 전술이라고 생각한다"고 강조했다.



허정무호는 그동안 4-3-3 전술을 위주로 사용했지만 UAE가 치렀던 3차 예선과 최종예선전을 분석해볼 때 두 명의 스 트라이커를 내세우는 게 가장 알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.

허 감독은 공격수들의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"축구 는 전체 선수가 함께하는 경기다. 선수를 선발할 때 기록을 의식 하기보다는 현재 컨디션을 보고 뽑았다"며 "기록만 가지고 평가 하지는 말아야 한다"고 설명했다.

그는 또 "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장신의 선수보다 작고 빠른 공격 수를 선호하지만 정성훈(부산)과 서동현(수원)은 제공권과 볼 키 핑 능력, 발재간을 고르게 갖췄다"며 "장신 선수는 경기가 안 풀 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도 된다"고 덧붙였다.

UAE전에 앞서 치러질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(11일 오후 7시.수원월드컵경기장)에 대해선 "선수들의 상황을 점검하 는 게 가장 중요하다. 선수별로 반 경기 이상은 뛰지 못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특히 그는 "우즈베키스탄전은 평가전일 뿐이다. UAE전이 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력을 다할 수는 없는 일"이라며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 등징계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.

박찬욱, 칸 초청에 "기쁜 봄소식...오래 기립박수 칠...



"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도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

그는 "UAE의 지난 경기를 돌이켜보면 사우디이라비아와 이란과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 전력이지만 이길 수 있는 상대"라며 "주어진 시간 동안 세트피스의 완성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"고 밝혔다.

hom90@yna.co.kr



<허정무호 생존경쟁 2라운드..주전을 꿰차리>

<월드컵축구>새 얼굴 3인방 "꿈을 이뤘다"

<월드컵축구> 허정무호, 첫 훈련부터 주전경쟁

김진규 무릎 연골 파열..축구대표팀 제외

<월드컵축구>캡틴 박지성 "승점이 꼭 필요하다"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10/09 18:16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▶ 01:18

▶ 02:22

[영상]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나 [영상] 곡사포-수송헬기 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

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 결국 우크라에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현장 영상 →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…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...美와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☐ 136 찰에 고발

2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_ ☐ 60 대병원 자원봉사

3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_____ 으 58 안 맞아"(종합)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동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

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광고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.톱뉴스/사설 이시각.헤드라인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 뉴스+

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대표이사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